

2015.10.25.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성령충만의 지속적인 삶 (2)

에베소서 4:25-5:4

김요셉 목사님

왜 중직자가 필요한가?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교역자들을 위해서 생명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신경써야 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 없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하는 결단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란다. 램넌트를 사랑해 주시고, 램넌트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 조금이라도 램넌트 현장을 가 보라.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 않나. 가 봐야 안다. 그 환경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가서 보아야 알 수 있다.

서론 :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현장에 가서 계속 목상하며 드는 생각이,

(1)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이다. 얼마 전에 전도캠프를 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영접자도 나오고 지교회 문도 열리고 계속 열리는 문들이 있다. 그 응답이 왜 캠프 때만 일어나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집중캠프 때는 메시지로 완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비된 자 있을 것이다, 흑암 꺾일 것이다 확신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절대 안 믿는 원래 상태로 간다.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지 않나.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되는가?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믿어진다는 데에는 어찌 할 수가 없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다. 진짜 이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다짐한 것이 있다. '아,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못 보았을 뿐이다. 말씀 성취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못 붙잡았을 뿐이다.' 이 시간에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램넌트들이 복음 들어가면 살아가면 살아난다. 현장이, 경제가, 복음 들어가면 살아난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말씀 들어가면 학업도 가정도 학교도 다 살아난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한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2) 왜 승리해야 하는가? 전달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게 전달된다는 말이다. 불신앙도 믿음도 다 전달된다. 말로 전달되고, 행동으로 습관으로 전달된다. 하울이가 뭐든지 다 따라한다. 방 댕는 것도, 양치질도 다 따라한다.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그대로 전달된다. 타인에게도 다 전달된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순도 100%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부모님들이 팀 사역을 잘 해야 한다. 복음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다. 완전 불신앙이다. "너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램넌트들 만날 때 팀 사역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도 헛갈릴 판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라. 중직자 여러분이 교회 현장의 주역이다.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늘 확인하라.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가? 믿는 자들에게다.

1. 도대체 성령충만이 무엇인가?

(1) 그리스도 충만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다. 마16:16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롬 6:11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2) 성령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가는 듯한 표정이다. (웃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한다. 시119:105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3) 어떤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인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불신앙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왜인가? 롬1:17에 뭐라고 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령충만이다. 어떤 상황에서서도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2. 성령충만의 결과

이렇게 성령충만을 얻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 행3:1-10에, 앉은뱅이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행4:1-12에,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행11:19-30에, 안디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행14:19-26에 루스드라에서, 행17:1-9 데살로니가에서, 행18:1-11 고린도에서, 행28:30-31 로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성령충만을 받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고후4:7-10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해도 싸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성령충만하면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이런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원한다.

(3)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갈5:22-23이다. 무엇이 사랑인지, 화평인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자비와 양선을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성령충만으로 그때부터 알게 된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성령충만을 받으면 알게 된다. 사람에게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지게 된다. 현장 보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충만의 결과다.

(4) 세계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행1:8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의 신으로 된다.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안 가는 곳을 가게 된다. 무속 현장도 가게 된다. 그것이 성령충만의 결과다.

3. 성령충만의 지속적인 삶

성령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1)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죄인가? 불신앙이다. 인본주의다. 신비주의, 염려, 의심을 이기게 된다. 저것을

통해서 흑암이 계속 틈타는데, 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2)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게 된다. 벰전5:8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혈기와 분을 품고 있지 않은가? 성령충만해야 도적질, 음담패설, 포악한 일, 폭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용서 못할 일과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다. 시기, 질투, 경쟁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난, 비판하는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다. 의심, 혈기, 거짓말이 사단의 통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충만한 삶이다.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한을 가지게 된 것이 가정 복음화다. 너무 빠지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시작도 안 했는데. 코도 안 꿰었는데. (웃음) 노는 건 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한이 정말 붙잡혀지게 되었다. 10월에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누나와 매형은 중직자로 임직을 받게 되었다.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다.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가정복음화는 진짜 시급한 일이다. 전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 가정, 문화가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 버렸다. 지역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빨리 건져주어야 한다. 힘을 얻어서 빨리 건져주어야 한다.

(3)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치료책을 주셨다. 요1:12이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치료책을 주셨는가?

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이다. 막3:15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다. 눅10:19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다.

② 어떤 치료책을 주셨는가? 어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을 전하고 캠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12:28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 캠프하는 현장,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통로를 막는 방법이다.

③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고전3:16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다. 마16:18에, 우리를 교회라고 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고 했다. 이것이 성령충만이다.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다. 완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요,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권세다.

결론 : 시급

모든 현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점을 불신자에게 두어야 한다.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 확신 없는 아이가 있다. 이단에 빠진 아이가 있다. 귀신 보는 아이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런 아이가 꼭 있다. 시한폭탄 같은 현장에서 램네프가 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다. 시급하다.

(1)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성령충만함을 얻어라. 다른 것 다 안 해도, 성령충만을 날마다 얻어라. 램네프들도 날마다 얻어라. 가기 전에 성령충만을 얻어라. 성령충만을 받아서 현장을 보여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인다.

(2) 시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성령충만을 얻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한다. 아무도 안 가고 있다.

(3) 성령충만을 받아서 후대를 살려야 한다. 아무도 안 살리고 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흑암의 문

화가 만들어져서 렘넌트를 파고든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한다. 왜인가? 이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 너무 심각한 상태다. 복음 가지고 그 현장 가면 도로 돌아가 버린다.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현장으로 가고 완전 후대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충만을 받아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충만을 얻어라. 중직자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말씀이 오늘부터 성취되기를 바란다.